




7 월의 플레이북



▶ 기업분석팀 sohye.kim@hanwha.com 3772-7404

업종별 7월의 플레이

업종	투자 포인트	Top Picks	담당자
▶ IT			
	- 반도체 공급의 지속적 제약과 견조한 수요 맞물리며 27년 더욱 심한 쏠티지 직면 전망 - 이로 인해 메모리 메이커들의 실적은 27년까지 매분기 최고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더해 LTA로 인한 실적의 지속성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박준영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인터넷: 실적 모멘텀/편더멘털은 주요 사업 성장 둔화 불가피. 신규사업 성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상황. 다만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 최저 수준, 박스권 하단은 지킬 것으로 예상 - AI인프라 전환 및 AX구축에 대한 스토리가 하반기 다수 존재하는 SI 업종 선호의견 유지	삼성에스디에스	김소혜
▶ 에너지/소재			
	- 리튬 부문 생산량 확대와 BEP 가시화가 확인될 경우 사업 가치 재평가 지속 전망 -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우주 섹터 내 옥석가리기에서, 고마진의 실적 기록하는 특수합금사 주가 재평가 전망	POSCO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권지우
▶ 산업재			
	- 업종 내 첫번째 투자 포인트는 원전 - 하반기 중 대미투자 발표, 원전 시공사 선정, SMR 착공 등 긍정적 이벤트 기대	현대건설 삼성물산	송유림
	- 업종 주요 투자포인트는 원전 - 미국, 베트남 등 팀코리아의 원전사업 확대 수혜 기대	한전기술	송유림
▶ 금융			
	- NIM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자산시장 호조에 의한 수수료 증가로 인해 이익 컨센서스는 연중 상향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서비스 손익을 기반으로 한 ROE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	KB금융 신한지주	김도하
	- 업황 전반의 보험 수익성 부진과 금리 상승에 따른 체질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 - 7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손보사의 실손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실적 개선의 가능성과 별도의 캐털리스트를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	DB손해보험	김도하
▶ 경기소비재 / 필수소비재			
	- 자동차/로봇 6월 주가는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5월 상승분 반납하며 저평가 구간 진입 - 자동차업종 2Q 실적은 수요 둔화 영향 불가피하나 하반기 신차효과로 점진적 개선될 것 - 로봇은 유니트리, Agility 등 주요업체들의 상장 추진에 따른 밸류 리레이팅 기대감 지속	기아	김성래
	- 내수 물량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업종 전반 해외 성장, 믹스 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 기대 대비 견조한 이익 시현 기대 - 대형주의 경우 유럽·동남아·중국 등으로의 수출 지역 확대, 국내 신성장 채널 대응 기업 중심 CAPA 증설 본격화 예상	삼양식품	한유정

업종	투자 포인트	Top Picks	담당자
▶ 경기소비재 / 필수소비재			
 화장품	-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비미국 국가로의 수출 성장 지속 중 - ODM/OEM사의 분기 수주 추이 또한 연초 이후 성장세 지속 중	에이피알	한유정
 유통/의류	- 부의 효과에 소득 효과가 가미되면서 내수 소비 강세 폭 확대 - 외국인 인바운드 소비 효과도 하반기 기여도 확대 전망. 인바운드 병목현상은 지속 - 홈플러스 구조조정 등은 지속되며 소비 강세에 반해 플레이어 수는 감소	롯데쇼핑	이진협
▶ 지주			
 지주	- 거버넌스 개혁으로 지주회사 NAV 할인을 축소 전망 - 기업집단 자본 조달 구조가 지주회사 중심으로 변화하며, 지주회사로의 부의 집중 전망 - PBR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본격화 전망	SK	이진협

한화 기업분석팀 Top Picks

종목	시가총액 (억 원)	투자포인트	담당자
삼성전자 (005930)	20,958,909	- HBM4 경쟁력 회복에 따른 멀티플 리레이팅과, 압도적 메모리 CAPA 기반의 실적 레버리지 전망. 또한, 글로벌 탭타어 AI 가속기 회사의 LPU 물량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수주. 하반기 파운드리 사업부 BEP 도달 가능성 증가 - 파업 이슈 또한 일단락되며 리스크 대비 효용이 더 큰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	박준영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147,482	- AI 전환 수요 확대 속 그룹사 IT 아웃소싱 물량 증가 기대 - 계열사 전반 외부 AI 서비스 구축 확대 사이클이 하반기 본격 집행 단계에 진입하며 SI 매출 인식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	김소혜
POSCO 홀딩스 (005490)	255,950	- 2026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7,070 억원으로 컨센서스 및 기존 추정치 상회 - 철강 부문 실적은 원료탄 가격 상승 부담으로 부진했으나 예상했던 부문. 2분기 스프레드 점진적 개선 기대 - 리튬은 PPLS 손익 개선과 아르헨티나 상업생산 개시로 램프업 국면 진입 확인	권지우
현대건설 (000720)	125,387	- 올해 원전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규모 수주 성과 기대 - 원전 수주 파이프라인의 추가 확대가 기대되는 구간인 만큼 긍정적 시각 지속할 필요 - 밸류에이션 상단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 유지	송유림
KB 금융 (105560)	538,771	- 계열 증권사의 이익 비중이 높은 만큼 브로커리지 및 S&T 호조로부터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됨 - 본질 손익인 이자 및 수수료이익 증가에 의해 주요 은행주 중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 - RWA의 환율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사주 매입률이 가장 높아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전망	김도하
기아 (000270)	544,626	- 2Q 글로벌 수요 둔화를 상쇄하는 북미/유럽 판매 증가와 긍정적 환율 등으로 높은 매출 성장 예상 - 특히, 텔루라이드 물량 확대와 스포티지 HEV HMGMA 양산 및 유럽 EV2 중심의 경제형 EV 물량 증가 주효 - BD 기존 주주간 매수매도 옵션 만기 시점 도래에 따라, 하반기 HMG Global 통한 BD 추가 지분 확보도 기대	김성래
삼양식품 (003230)	86,102	-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강세. 1분기 미국-중국-유럽 모두 고성장을 기록해 지역 확장성 재차 확인 - 밀양 2공장 램프업과 가동시간 확대가 진행 중. 공급 병목 완화에 따라 매분기 사상 최대 매출 시현 가능성 - '27년 중국 신공장 준공 전까지도 해외 법인 타이트한 재고 운영. 추가 증설 및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 유효	한유정
에이피알 (278470)	142,639	- 미국 Target-Walmart-Costco 등 입점과 추가 신제품 출시로 채널-제품 확장 모멘텀이 뚜렷하며, SCM 안정화 시 이익 추가 개선 여지도 존재 - 미국 오프라인-유럽 확장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으며, 공급망 개선 시 외형 성장과 손익 개선이 동반될 가능성	한유정
롯데쇼핑 (023530)	48,261	- 내수 강세에 따른 백화점 매출 성장 지속 전망 - 외국인 인바운드 병목에 따른 구조적 외국인 매출 성장 지속 - 롯데마트, 홈플러스 구조조정 수혜	이진협
SK (034730)	622,073	- 지주사 중심 자본조달 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주 -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브랜드로열티 증가 및 SK 에코플랜트/팜테코 등 비상장 자회사 성장 기대 - SK 에코플랜트 지배력 확대는 긍정적	이진협

주: 시가총액은 06월 25일 종가 기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06월 26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분석팀)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이전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이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